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 여 진

2009년 8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지도교수 김 양 순

김 여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김여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年 8月

<국문초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김여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양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과 아동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 학교 4, 5, 6학년 학생 600명을 표집하여 최종 5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서지능 검사는 Salovey &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6)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 α 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빈도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모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모의 양육태도 애정-적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부의 양육태도는 성취-비성취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위 요인별로 정서인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서표현, 정서조절 순이며 감정이입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정서인식의 평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모든 과목 평균이 86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에 따라서는 모의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형제수가 1명인 아동에 비해 2명인 아동과 셋 이상인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인 아동과 둘째인 아동이 외동인 아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고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인 아동이 외동인 아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성취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동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국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형제수에 따라서는 형제수가 1명인 아동이 3명이상인 아동보다 전체 학업성취도 및 사회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 첫째, 둘째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아동의 학업성취도보다 모두 높았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는 정서지능의 다른 요인에 비해 정서조절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 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낮았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합리-비합리와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었으나 모의 양육태도와 수학, 과학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보다는 부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와 국어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감정이입과 수학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양육태도	4
2. 정서지능	9
3. 학업성취도	12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15
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17
6.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18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
2. 측정도구	20
3. 자료분석 방법	23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2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일반적인 분포 경향	26
3.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29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37

VI. 결론 및 제언	40
1. 결론	40
2. 제언	43
참고 문헌	44
ABSTRACT	49
부 록	52



표 목 차

<표 II-1> 정서지능의 3영역 10요소	11
<표 III-1> 부모 양육태도의 4개 차원	21
<표 III-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 문항구성	22
<표 III-3> 정서지능 질문지 문항구성	23
<표 IV-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25
<표 IV-2> 부모의 양육태도	27
<표 IV-3> 정서지능	28
<표 IV-4> 아동의 학업성취도	29
<표 IV-5>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의 양육태도	30
<표 IV-6>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32
<표 IV-7>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	33
<표 IV-8>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35
<표 IV-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37
<표 IV-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38
<표 IV-11>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39

그림 목 차

[그림 II-1] Symonds 양육태도 모형	6
[그림 II-2] Schaefer 양육태도 모형	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에서부터 속하게 되는 최초의 집단이며, 인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으로서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부모 형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언어, 가치, 지식, 행동 등을 습득한다. 아동의 발달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등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아동에게는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을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하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형태별로 아동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전선재, 2003).

Horney(1964)는 아동들의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Hallahan과 Kauffman(1978) 또한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들었다. 이외에도 아동의 정서지능과 가정의 특성을 관련시켜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정선희, 2001).

한국사회는 전통적 유교사상에서 특유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의 동일체감을 형성해 왔으며, 한국의 부모들은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대리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 임연기(1998)는 자녀교육의 기대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3,0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

4명 중 1명이 자녀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국 부모들의 높은 자녀교육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와 학벌 위주 사회풍토 아래 과도한 경쟁을 요구받는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각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전국 94개 초등학교 7천 7백 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불안과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정서 장애 행태를 보인 학생이 20.1%, 반항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행동장애 우려가 있는 학생도 11.6%에 달했다. 즉 초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불안이나 우울증, 반항심과 같은 정서 장애나 행동 장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며 우리나라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최근 보도 자료가 있었다(2008.12.5, MBC뉴스).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들에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긍정적인 가정교육 환경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전체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는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개별적인 아동의 심리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가정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단위로서 개인이 처음으로 모든 경험을 습득하는 곳이며 학습을 시작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 기능과 중요성을 갖는다.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는 한 개인이 인생에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에서도 매우 중요시된다.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이며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관계이다.

발달심리학에서 아동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30여 년 전부터의 일이다. 17세기만 해도 엄격한 훈련 및 체벌이 가정 효율적인 양육태도로 여겨졌으나 18세기에 들어서 소아의학과 심리학의 발달로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으며 본인 자신이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점차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김현숙, 198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Fishbein과 Ajzen(1975)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정서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정선희, 2001).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1996)에 따르면,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에 대하여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즉, 유아기의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유아의 행

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이다. 이원영(1983)은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명숙(1988)은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덧붙여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떤 일정한 정서적 강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용의성 및 내적 행동 등도 양육태도로 개념화하였다.

또 권일선(1994)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과 같은 외적 성향을 양육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동미(1996)는 일정한 문화양식의 범주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양육태도라 하였고, 지진미(2003)는 이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인 행동이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과 아동에 대한 요구라고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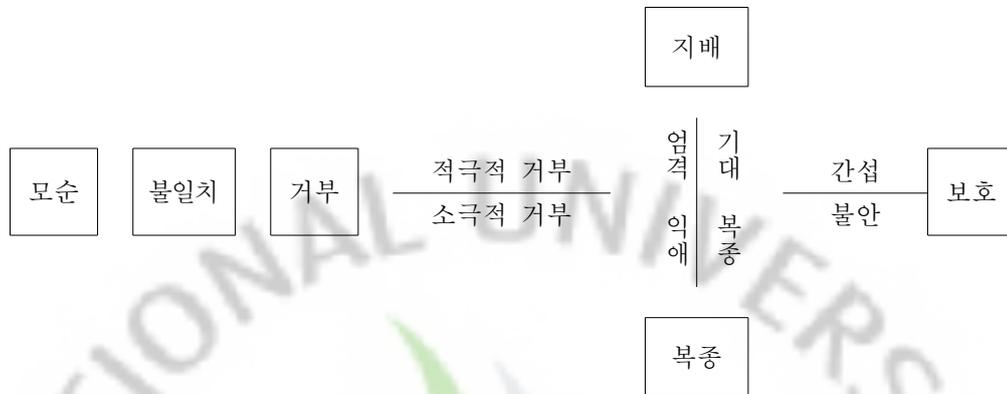
많은 학자들이 양육태도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즉 양육태도란 부모가 그들이 속한 문화양식 내에서 나타나는 내현 및 외현적 태도의 경향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취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형태를 [그림 II-1] 에서와 같이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2개의 차원을 다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도 아니고 지배적도 아니

며 과보호적도 아니고 복종적도 아닌 중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최우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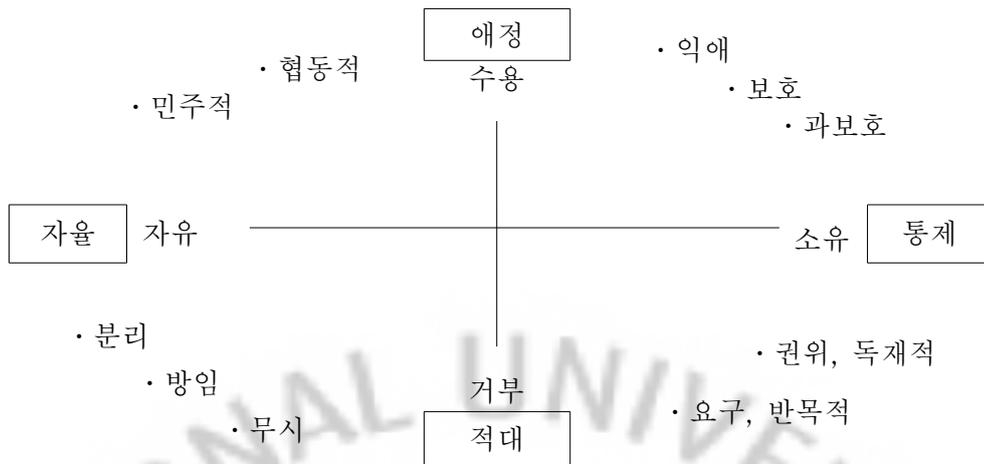


[그림 II-1] Symonds 양육태도 모형(Symonds, 1949; 정선희, 2001, 재인용)

이러한 Symonds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헌을 했으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한 임상사례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신생아기부터 청소년 이전의 장기간 동안 연구하여 자녀 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는 요인과 서로 대립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각 변인의 위치를 원형상에 나타내었다. Schaefer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림 II-2] 에서와 같이 애정-적대, 자율-통제 두 축을 중심으로 나누어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통제적-거부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익애형의 양육태도로서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이다. 거부적-자율적 태도는 방임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며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독재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그림 II-2] Schaefer 양육태도 모형(Schaefer, 1959; 양애경, 2003, 재인용)

Schaefer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적 통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지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성심·이종승(1982)이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오성심·이종승(1982)이 분류한 위 4가지 영역을 각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애정-적대적 태도 :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으며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자녀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부모가 자녀를 무시, 거부, 무관심,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비난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② 자율-통제적 태도 : 자녀의 의견, 권리를 존중하여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책임지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민주적인 태도와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통제적이며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자녀에 대한 간섭이 심하고 설명이나 설득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③ 성취-비성취적 태도 : 부모가 자녀에게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표달성을 격려해 주며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끈기있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태도와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녀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완수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 호기심에 대한 연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말한다.

④ 합리-비합리적 태도 :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자녀와의 약속을 중시하며 자녀교육에 이성적이고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생각, 행동에 대해 이유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며 자녀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자녀의 교육에도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Schaefer(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첫째, 부모 자신이 인식하는 양육태도가 있으며 둘째,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방법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김성연, 1981 ; 이숙, 1988 ; 강인숙, 2007, 재인용)하고 있다.

아동의 지각은 아동 개인의 행동, 태도 및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이유에서 양육태도의 조사를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2. 정서지능

1) 정서지능의 정의

정서란 용어와 개념은 문헌상으로는 과거부터 인지발달과 함께 언급되어 사용되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성과 정서 간에 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Goleman(1995)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1920년 Thorndike가 사용한 사회적 지능에 근거한 것이라 하였으며 Thorndike는 사회적 지능을 인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즉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이진화, 1999).

Gardner(1983)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지능과 자기의 정서, 동기 등 마음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함으로써 정서지능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삼원이론을 주장한 Sternberg(1985)도 성공지능이란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정서지능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정서지능은 기존의 지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지능이나 성공지능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로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Salovey와 Mayer(1990)였다.

Salovey와 Mayer(1990)는 분노, 슬픔, 기쁨, 사랑, 놀라움, 혐오, 수치 등의 다양하고도 미묘한 인간의 정서가 이성애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능의 범위 안에 정서를 포함시켜 정서지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monitor)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discriminated)하며, 생각(thinking)하고 행동(action)하는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action)이다(Salovey& Mayer, 1990, 정선희 2001, 재인용).

Salovey와 Mayer(1993)는 정서지능의 개념이 특히, Gardner(1993)의 다중지능 중에서 개인지능(personal intelligence)과 중첩된다고 간주하였다.

Gardner가 주장한 9가지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리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대내지능, 자연관찰 지능, 실존지능인데, 이 중에서 개인 지능이라 불리는 대내지능과 대인지능은 사회적 지능과 흡사하다.

Gardner가 제시한 대인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대내지능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서지능과 매우 흡사하다. 개인지능은 정서지능만큼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지능 이론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평가와 조절, 그리고 그런 정서적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이론을 좀 더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심리학자는 Goleman이었다. Goleman(1995)은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개념을 다섯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는데 그 요소는 자신의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 조절, 자신을 동기화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대인관계 다루기이다(정선희 2001, 재인용).

Salovey와 Mayer(1996)는 초기의 정의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정서에 대한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개념이 여전히 애매하다는 점을 보충하고자 1997년에 정서지능에 대한 수정된 정의를 발표하였다. 즉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이은숙, 2002, 재인용).

2)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처음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의 정의인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입각하여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표 II-1>과 같이 3영역 10요소로 규정하였다.

<표 II-1> 정서지능의 3영역 10요소(Salovey & Mayer)

영역	요소
영역 I 정서의 인식과 표현	요소 1 : 자기 정서의 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2 : 자기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3 : 타인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4 : 감정이입
영역 II 정서의 조절	요소 5 : 자기의 정서조절 요소 6 : 타인의 정서조절
영역 III 정서의 활용	요소 7 :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요소 8 : 창조적 사고 요소 9 : 주의집중의 전환 요소 10: 동기화

첫 번째 영역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를 보다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인 정서의 조절 영역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감정이나 기분 상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 흥분, 우울, 불안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동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세 번째 영역인 정서 활용 영역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를 해결할 때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창의적 사고, 주위집중의 전환, 동기화 등의 문제 해결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인기와 지도력을 겸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lovey와 Mayer(1990)가 정서지능을 3영역 10요소로 규정한 모형에 입각하여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용린(199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3. 학업성취도

1) 학업성취도의 개념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란 학습을 통하여 얻어진 능력이나 학업성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자에 따라 학업성취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규창(1971)은 학업성취란 교과목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학습활동의 결과물로서, 학습자가 획득한 능력(지식, 이해, 기능, 문제해결력 등) 및 행동경향(흥미, 능력, 가치관, 적응성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몸에 정착한 것이라고 했다(정필환, 2002).

김순택(1979)은 학업성취란 교과목의 성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가진 특성, 학습과제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교사가 수행하는 수업방법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미아, 2004). 김희영(1990)은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 지적 능력, 태도, 가치관 등 학습결과의 총칭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교육평가 연구회(1995)는 학교의 학습 결과로 나타난 학생의 지적 발달, 즉 양적인 증가 및 질적 변화를 포함한 발달의 정도를 학업성취도라고 하였다(김상래, 2002).

또한 학업성취란 성취해야 할 일련의 학습과제를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 학습 활동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적 노력의 결과이며 생산이라고 정의하였고(황정규, 1981), 이인자(2002)는 교육 분야에서 성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것, 즉 평균적인 것과 연계되어지는 것으로서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완수의 수준은 교사나 시험 등에 의하여 평가되어지며, 성취자 본인과는 별개의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교육목표의 완수정도라고 하였다.

이상의 학업성취도 개념을 종합해보면 학업성취는 단순히 교과목의 성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인 교육목표 달성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지적 측면의 초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을 학업성취도로 나타내었다.

2) 학업성취 관련 변인

정원식(1980)에 의하면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가진 지적 능력과 정의적 특성, 학습방법과 학습동기로 요약되는 학습자 요인과 교육풍토, 문화수준, 학교환경, 가정배경 등으로 요약되는 환경요인 및 수업체제, 평가체제, 교수방법, 교사의 자질 등으로 요약되는 수업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최우기, 2007, 재인용).

정범모·이성진(1995) 역시 「학업성취의 요인」에서 환경요인과 학습자요인, 수업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변인을 제시하고, 환경요인으로는 교육풍토, 문화, 가정환경, 학습의 사회적 환경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요인으로는 선행학습 및 일반적 능력, 정의적 특성,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업요인으로 수업체제, 평가체제, 학습집단 구성, 교사행동 등을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정필환, 2002, 재인용).

Bloom(1971)은 선행학습이 50%, 정의적 특성 25%, 수업의 질이 25%씩 학업성취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Goleman(1971)은 학생의 가정배경변인, 학교환경변인, 교사특성변인, 학교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Walberg(1984)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군을 학생적성 변인군, 학습지도 변인군 그리고 사회·심리적 환경 변인군 등 3개의 변인군으로 나누고 있다(정필환, 2002, 재인용).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각 변인들에 대해 측정하는 하위 변인들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나 학업성취 관련 변인으로 환경적 변인, 학습자 변인, 교수-학습 변인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환경적 변인으로 환경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하는 인간 형성의 바탕이 되는 환경의 장으로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가정환경은 자아 지각을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인간 형성의 기초 작업이 대부분 어릴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어릴 때의 발달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정은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아동발달과 교육에서 그 어떤 환경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동의 모든 특성과 그 기초는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환경은 학교라는 울타리, 조직체 또는 사회체제에서 학생과 교사, 직원 등 학교 성원과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에 직접, 간접으로 일정한 힘, 자극, 영향, 압력을 미치는 세계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 변인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은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loom(1976)은 어떤 새로운 특정 학습과제를 학습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선수적인 지식, 기능 및 능력을 인지적 특성으로 보았다. 그는 선수학습은 학습자와 학습과제의 습득을 맺어주는 연결체이며,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잘 학습하는데 필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과목은 지적 출발점 행동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본 단위 학습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김미영, 2008, 재인용).

정의적 특성은 학습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 태도, 자아개념,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특정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한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도 포함된다.

Anderson(1981)은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간의 속성으로 정의하고 태도, 흥미, 가치, 선호, 학업적 자기 존중, 통제의 소재, 불안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김미영, 2008, 재인용). 이종승(1980)은 학교 학습의 결정 요인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에서 정의적 특성 요인으로 자아개념, 성취동기, 흥미, 태도 등을 들고 이들 특성들은 모두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셋째, 교수-학습 관련 변인에 의해서 학습지도 방법과 능률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학교 풍토와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능력을 촉진하는데 교사의 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교수·학습 변인은 수업에 관여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교수방법,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Goleman(1971)은 학생의 가정 배경변인, 학교 환경변인, 교사 특성변인, 학교 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가정배경요인이 학생의 학업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 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영국의 Prowden 보고서는 초등학교와 그 학생들을 연구한 것으로 학업성취의 격차는 부모의 태도, 가정환경 및 학교의 특성 순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이안례, 1995).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 중에서 가정은 직접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아동 발달과 교육에서 그 어떤 변인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정서적 특성과 기초는 가정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즉 성격과 정서상태는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명숙, 2002). 이외 여러 연구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wlby(1982)에 의하면 초기 아동기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경험, 특히 애착관계의 형성과 독립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된 경험, 주요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반응은 초기 아동기 이전에 숙한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쳐, 그 때 형성된 정서적 패턴과 틀은 일생을 좌우할 정도라고 하였다(정선희, 2001, 재인용).

가정은 정서지능에 관한 최초이자 최고로 중요한 학습의 장이다. 이 친밀한 배움터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희망과 공포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정서지능의 학습은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부부간에 교환되는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뛰어난 정서지능 교사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잔혹한 교사가 되기도 한다(문용린, 1996).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의적 특성, 특히 자아개념, 안정성, 사회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그들의 정의적 특성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태도의 애정 및 성취차원과 자아개념, 안정성, 사회성 등의 정의적 특성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이미정, 2006, 재인용).

지진미(2003)는 5세 유아의 정서지능 정도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영역이 유아의 자기 감정관리, 타인감정관리 영역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적대적 영역에서는 자기동기부여와 자기감정관리, 타인감정관리에서 부적의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순옥(2002)의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어머니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대인관계 기술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자기정서 이용과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타인 정서인식 및 표현과 정서지능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원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대인관계 기술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자기 정서 이용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와 관련된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희(2001)는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 모든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양애경(2003)도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윤용숙(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자율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인식이 높고,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을 잘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제반 사회·정서적 특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적이고 합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앞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서 언급한 Goleman(1971)의 연구와 Prowden 보고서에처럼 가정배경 요인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는 부모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학업성취는 가정을 비롯한 주위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특히 부모의 자녀에게 어떤 양육적 태도를 가지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내용과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지현(2006)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 개방적, 자율적,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최우기(2007)는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태도수준이 높고 거부적 태도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전체 및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기중(2000)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아동들이 거부적이며, 타율적이고 성취압력을 낮게 지각한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홍은정(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개방적으로 느낀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이주현(2004)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성취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상래(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미영(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 자율, 합리, 도전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 자율,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별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차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용학(1989)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 자율, 성취 압력이 비과잉인 것이 거부, 통제, 성취 압력이 과잉인 것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와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 부모다는 모와 더 높은 정적 상관을 갖으며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는 유의한 상관이 없고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6.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Mischell(1990)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여 15년간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정서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도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 능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이입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곽윤정, 1997;민혜경, 2008, 재인용).

Goleman(1995)은 인간에 있어 긍정성, 낙관성의 정서능력은 학업성취 예언력에서 입학시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14년간의 장기연구에서는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충동, 욕망을 억제할 줄 아는 능력은 수십년 후의 학업에 큰 영향을 주며, 사회적 책임감은 학업성취, 과제목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학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지능으로만 국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서의 영역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홍순웅, 1999; 김명옥, 2004, 재인용).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꽃눈(2004)은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들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성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서의 인식과 표현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교과 즉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음악, 미술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고 정서의 반영적 조절 영역도 음악, 미술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한 박미영(2008)은 전체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 총점 간에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정서 활용을 제외한 정서인식표현, 사고촉진, 감정이입, 정서조절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최경아(2005)의 수학에 대한 정서, 정서지능,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에서는 수학 학업성취와 정서지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앞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서지능 구성요소들의 일부는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으로 정하였다. 2개 학교 19학급 6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565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학교성적이 빠진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22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두 측정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다 있는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12월 4, 5, 6학년 한 학급씩 3개 학급의 6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개 차원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분류하였으며, 4개의 하위요인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검사의 채점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채점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 즉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방향 즉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의 4개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부모 양육태도의 4개 차원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p>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적이며 헌신적이다. ·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다. 	<p>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며 소홀하다. · 자녀를 위한 시간을 별로 내주지 않는다. · 비난 및 체벌을 자꾸 가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
<p>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한다. ·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 자녀 스스로의 생각과 처리 및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한다. 	<p>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고 전체적인 편이다. ·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둔다. · 설명이나 이유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p>성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포부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를 격려한다. · 부지런히 활동하기를 격려한다. · 끈기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p>비성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맡은 일에 대한 책임완수의 여부에 무관심하다. ·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대한 요구에 비협조적이다.
<p>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사에 이유를 중시한다. ·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의 제시를 요구한다. · 교육에 있어서 이성적인 편이다. 	<p>비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우선 따지는 편이다. · 교육에 있어서 그때그때의 감정에 치우치는 편이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88로 나타났으며 문항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III-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	모
애정-적대	10	1, 3*, 12, 16*, 20, 24, 28, 31*, 32, 35*	.74	.72
자율-통제	8	5, 9, 13, 17*, 21, 25*, 36, 38*	.50	.63
성취-비성취	10	2, 6*, 10, 14, 18, 22, 26*, 29*, 33, 37	.63	.60
합리-비합리	10	4*, 7, 8, 11*, 15*, 19*, 23, 27, 30, 34*	.75	.70
계	38		.86	.87

* 역채점 문항

2)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정서지능 척도는 Salovey &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6)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검사도구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의 채점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37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채점(9~15번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을 보면, 정서인식 요인의 자신의 정서인식과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요인의 자신의 정서표현과 타인의 정서표현, 감정이입 요인의 의미있는 타인과 무의미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정서조절 요인의 자신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측정요소로 가지고 있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90으로 나타났으며 문항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Ⅲ-3> 정서지능 질문지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인식	8	1 ~ 8	.83
정서표현	7	*9 ~ *15	.76
감정이입	7	16 ~ 22	.80
정서조절	15	23 ~ 37	.88
계	37		.90

* 역채점문항

3) 학업성취도 측정도구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2008년 6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한 제학년제학력맞추기 평가 교과목 즉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결과와 이들 4과목 성적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위한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형제수와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해서는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변수		빈도	백분율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60	49.8	형제수	1명	30	5.9
	여자	262	50.2		2명	322	63.3
					3명 이상	157	30.8
학년	4학년	172	33.0	출생순위	외동	29	5.6
	5학년	162	31.0		첫째	219	42.0
					둘째	214	41.0
6학년	188	36.0	셋째이상		57	10.9	
부 연령	35세 미만	0	0	모 연령	35세 미만	10	1.9
	35~40세	63	12.1		35~40세	187	35.8
	41~45세	313	60.0		41~45세	277	53.1
	46세 이상	145	27.8		46세 이상	48	9.2
부 학력	고졸 이하	96	18.4	부 학력	고졸 이하	96	18.4
	대졸 이상	407	78.0		대졸 이상	407	78.0
모 학력	고졸 이하	131	25.1	모 학력	고졸 이하	131	25.1
	대졸 이상	367	70.4		대졸 이상	367	70.4
부 직업	전문직	82	15.7	모 직업	전문직	92	17.6
	사무직	272	52.1		사무직	132	25.3
	판매직	88	16.9		판매직	91	17.4
	생산직	69	13.2		생산직	24	4.6
	무직	7	1.3		주부	174	33.3
	기타	2	0.4		기타	7	1.3
	계	522	100.0		계	522	100.0

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49.8%, 여학생이 50.2%였고, 학년 분포는 4학년 33.0%, 5학년 31.0%, 6학년 36.0%, 가족형태 분포는 대가족 4.8%, 핵가족 95.2%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핵가족 형태의 가정에 속해 있었다. 형제수 분포는 1명이 5.9%, 2명이 63.3%, 3명이상이 30.8%로 형제수가 2명이 아동이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는 외동이 5.6%, 첫째가 42.0%, 둘째가 41.0%, 셋째 이상이 10.9%였다.

부모의 나이 분포는 아버지는 35~40세가 12.1%, 41~45세가 60.0%, 46세 이상이 27.%, 어머니는 35세 미만이 1.9%, 35~40세가 35.8%, 41~45세가 53.1%, 46세 이상이 9.2%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는 41~45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학력 분포는 아버지는 고졸 이하 18.4%, 대졸이상 78.0%이며, 어머니는 고졸이하 25.1%, 대졸 이상 70.4%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부분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직업분포는 아버지는 전문직이 15.7%, 사무직이 52.1%, 판매직이 16.9%, 생산직이 13.2%, 무직이 1.3%, 기타 0.4%였고, 어머니는 전문직이 17.6%, 사무직이 25.3%, 판매직이 17.4%, 생산직이 4.6%, 주부가 33.3%, 기타 1.3%로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주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무직이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일반적인 분포 경향

1)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분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가지 양육태도의 문항별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표IV-2>와 같다.

<표 IV-2>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애정-적대	3.66	0.61	3.89	0.57
자율-통제	3.67	0.53	3.71	0.60
성취-비성취	3.58	0.55	3.74	0.54
합리-비합리	3.69	0.64	3.65	0.61

부모 양육태도 척도는 5점 척도이고 중앙값인 3점보다 높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모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의 양육태도보다 모의 양육태도 평균이 높았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의 애정-적대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으며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부의 양육태도는 성취-비성취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낮았고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는 비슷한 평균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성취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경향이 높다는 배문주(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녀수가 적어지면서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이 자녀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의 전체적인 분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의 문항별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정서지능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정서인식	4.16	0.64
정서표현	3.61	0.80
감정이입	3.40	0.76
정서조절	3.55	0.68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활용을 제외하고는 5점 척도이고 중앙값인 3점보다 높다. 이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역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정서인식이 4.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서표현(3.61), 정서조절(3.55) 순이며 감정이입이 3.40로 가장 낮았는데 정서인식의 평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뛰어남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어 아동의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아동의 학업성취도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목별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였는데 결과는 <표 IV-4>와 같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이 모두 86점 이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목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국어가 91.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88.08), 수학(87.01)이고 과학이 86.96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아동의 학업성취도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국어	91.66	8.21
수학	87.01	12.13
사회	88.08	12.75
과학	86.96	12.23
전체	88.43	11.33

3.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1)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과 모 학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p<.001$)와 합리-비합리($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이동화(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형제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검증에서 애정-적대($p<.01$), 성취-비성취($p<.01$), 합리-비합리($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율-통제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의 양육태도

배경변인		애정-적대	지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성별	남	3.55	3.63	3.56	3.59
	여	3.77	3.71	3.60	3.79
	t	-4.13***	-1.79	-0.85	-3.55***
형제수	1명	3.33 a	3.52	3.27 a	3.37 a
	2명	3.71 b	3.69	3.60 b	3.73 b
	3명 이상	3.60 b	3.65	3.58 b	3.65 b
	F	6.22**	1.43	5.07**	4.69**
출생순위	외동	3.35 a	3.52	3.22 a	3.35 a
	첫째	3.70 b	3.73	3.63 b	3.75 b
	둘째	3.67 b	3.65	3.59 b	3.70 b
	셋째이상	3.58 ab	3.60	3.52 b	3.57 ab
	F	3.19*	2.05	5.15**	4.10**
부학력	고졸 이하	3.64	3.61	3.53	3.59
	대졸 이상	3.67	3.69	3.59	3.72
	t	-0.38	-1.45	-1.06	-1.83
모학력	고졸 이하	3.70	3.67	3.57	3.73
	대졸 이상	3.66	3.68	3.59	3.70
	t	0.69	-0.24	-0.22	0.49

1) *p<.05, **p<.01, ***p<.001

2)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사후검증 결과 형제수가 1명인 아동과 2명인 아동, 셋 이상인 아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형제수가 1명인 아동에 비해 2명인 아동과 셋 이상인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부의 양육태도에 대한 검증에서 애정-적대(p<.05), 성취-비성취(p<.01), 합리-비합리(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율-통제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합리-비합리에서 외동과 첫째와 둘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비성취에서 외동과 첫째와 둘째, 셋째 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가 외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고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이 외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성취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애정적이고, 출생순위가 셋째인 집단이 가장 비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인식한다는 강인숙(2007)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출생순위와 부모양육태도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아 출생순위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6>와 같다.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출생순위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형제 수 및 부 학력과 모 학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p<.001$)와 합리-비합리($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이동화(2003)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였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며 자율적으로 지각한다는 박영옥(2008)의 선행연구와는 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6>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배경변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성별	남	3.79	3.68	3.72	3.57
	여	3.99	3.75	3.76	3.74
	t	-4.25***	-1.47	-0.75	-3.30***
형제수	1명	3.82	3.58	3.69	3.62
	2명	3.91	3.75	3.74	3.67
	3명 이상	3.87	3.67	3.72	3.61
	F	0.54	1.71	0.24	0.62
출생순위	외동	3.86	3.64 a	3.72	3.65
	첫째	3.92	3.78 ab	3.76	3.72
	둘째	3.87	3.72 ab	3.71	3.62
	셋째이상	3.87	3.50 b	3.75	3.55
	F	0.40	3.51*	0.42	1.52
부학력	고졸 이하	3.86	3.65	3.68	3.59
	대졸 이상	3.90	3.74	3.76	3.68
	t	-0.54	-1.34	-1.20	-1.38
모학력	고졸 이하	3.90	3.73	3.68	3.65
	대졸 이상	3.90	3.72	3.77	3.67
	t	-0.04	0.10	-1.70	-0.32

1) *p<.05, **p<.01, ***p<.001

2)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출생순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검증에서 자율-통제(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자율-통제에서 출생순위가 외동인 아동과 셋째 이상인 아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출생순위가 외동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좀 더 자율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

배경변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성별	남	4.19	3.45	3.33	3.45
	여	4.13	3.77	3.46	3.64
	t	1.08	-4.72***	-1.89	-3.19***
형제수	1명	3.98	3.47	3.28	3.45
	2명	4.19	3.60	3.41	3.54
	3명 이상	4.13	3.67	3.39	3.59
	F	1.64	0.88	0.42	0.70
출생순위	외동	3.94	3.51	3.26	3.46
	첫째	4.14	3.66	3.43	3.52
	둘째	4.20	3.58	3.39	3.58
	셋째이상	4.14	3.62	3.32	3.54
	F	1.53	0.50	0.59	0.42
부학력	고졸 이하	4.14	3.55	3.36	3.58
	대졸 이상	4.17	3.62	3.41	3.55
	t	-0.46	-0.77	-0.64	0.32
모학력	고졸 이하	4.13	3.52	3.33	3.61
	대졸 이상	4.18	3.64	3.43	3.54
	t	-0.76	-1.55	-1.19	1.08

1) *p<.05, **p<.01, ***p<.001

2)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형제 수와 출생순위 및 부 학력과 모 학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은 정서표현($p<.001$)과 정서조절($p<.0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권영아(2002)의 선행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고 한 윤용숙(2006)의 연구 결과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보이지만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다는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4)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배경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어성적에서만($p<.01$)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학, 사회, 과학, 및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국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황지현(2006)과 민혜경(2005)의 선행연구 및 성별에 따라 지필고사에서 수학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김규석(2009)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형제수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p<.05$)와 평균($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형제수가 1명인 아동이 3명이상인 아동보다 전체 학업성취도 및 사회과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배경변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성별	남	90.75	87.17	88.22	87.04	88.29
	여	92.57	86.86	87.95	86.89	88.57
	t	-2.56***	0.28	0.24	0.14	-0.34
형제수	1명	93.00	89.80	91.80 a	89.80	91.10 a
	2명	91.95	87.24	88.75 ab	87.78	88.93 ab
	3명 이상	91.25	86.17	86.01 b	85.52	87.24 b
	F	0.74	1.22	3.84*	2.67	3.00*
출생순위	외동	92.90 a	90.07 a	92.14 a	90.69 a	91.45 a
	첫째	92.65 a	87.82 ab	89.29 a	87.95 a	89.42 a
	둘째	91.78 a	87.05 ab	87.99 ab	87.14 a	88.49 a
	셋째이상	87.47 b	83.16 b	82.35 b	81.33 b	83.58 b
	F	6.90***	3.00*	5.82***	5.80***	7.73***
부학력	고졸 이하	90.40	84.07	84.63	83.73	85.71
	대졸 이상	92.23	88.07	89.35	88.08	89.44
	t	-2.08*	-2.78**	-3.39***	-3.27***	-3.27***
모학력	고졸 이하	90.46	83.96	85.44	84.37	86.06
	대졸 이상	92.39	88.60	89.72	88.34	89.76
	t	-2.43**	-3.95***	-3.50***	-3.33***	-3.78***

1) *p<.05, **p<.01, ***p<.001

2)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출생순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 국어(p<.001), 수학(p<.05), 사회(p<.001), 과학(p<.001), 평균(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국어, 과학 및 평균이 셋째 이상인 아동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인 아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학은 외동과 셋째 이상인 아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셋째

이상인 아동과 외동과 첫째인 아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출생 순위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외동, 첫째, 둘째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보다 전체 학업성취도 및 국어, 과학과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동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보다 수학과 학업성취도가 높고 외동인 아동과 첫째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보다 사회과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혜경(2006)의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성 발달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출생순위와 학업성취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출생순위와 학업성취도와와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아 앞으로 출생순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부의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어($p < .05$), 수학($p < .01$), 사회($p < .001$), 과학($p < .001$), 성적평균($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자녀의 학업성취도보다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의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과목($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아동의 학업성취도보다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은정(2007)의 부와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가정의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보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전체과목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지은(2009)의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 정서지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부	애정-적대	.20**	.28**	.19**	.35**
	자율-통제	.27**	.20**	.19**	.35**
	성취-비성취	.32**	.18**	.25**	.39**
	합리-비합리	.23**	.26**	.12**	.30**
모	애정-적대	.21**	.28**	.22**	.34**
	자율-통제	.23**	.21**	.17**	.30**
	성취-비성취	.25**	.19**	.22**	.31**
	합리-비합리	.18**	.27**	.09*	.23**

*p<.05, **p<.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와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p<.05, p<.01)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09에서 .39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정서조절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높았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 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낮았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합리-비합리와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부모의 합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정이입능력과의 관련성이 가장 적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양애경(2003)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에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 IV-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학업성취도				평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부	애정-적대	.09*	.04	.09*	.06	.08
	자율-통제	.13**	.10*	.11*	.09*	.13**
	성취-비성취	.11**	.09*	.12**	.08	.12**
	합리-비합리	.13**	.03	.09*	.09*	.10**
모	애정-적대	.14**	.04	.10*	.06	.09**
	자율-통제	.09*	.06	.10*	.07	.10**
	성취-비성취	.11*	.06	.09*	.05	.09**
	합리-비합리	.09*	.01	.07	.07	.07

*p<.05, **p<.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01에서 .13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모의 양육태도와 수학, 과학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p<.05, p<.01)가 나타나고 있다.

부의 양육태도 중에서 애정-적대는 국어와 사회, 자율-통제는 모든 과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부의 성취-비성취는 과학을 제외한 과목과 합리-비합리는 수학을 제외한 과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자율-통제, 성취-비성취는 국어와 사회, 평균점수와 합리-비합리는 국어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모의 양육태도보다는 부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크다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국어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과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학업성취도 정서지능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정서인식	.15**	.09*	.07	.11*	.12**
정서표현	.14**	.11*	.11*	.09*	.13**
감정이입	.16**	.07	.07	.09*	.11*
정서조절	.20**	.11*	.15**	.13**	.17**

*p<.05, **p<.01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07에서 .23으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감정이입과 수학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p<.05, p<.01)를 보였다. 정서지능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은 학업성취도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인식은 사회를 제외한 학업성취도의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감정이입은 국어와 과학, 성적 평균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 간에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있었다는 박미영(2008)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과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과 아동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일반적인 경향

첫째,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모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의 양육태도보다 모의 양육태도 평균이 더 높았는데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의 애정-적대 양육태도가 부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평균보다 높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으며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의 양육태도 중에 애정-적대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이 자녀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부의 양육태도는 성취-비성취의 평균이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낮았고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는 비슷한 평균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자녀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표달성을 격려해주는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었다. 하위 요인별로 정서인식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이 정서표현, 정서조절 순이며 감정이입이 가장 낮았는데 정서인식의 평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뛰어남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고 이에 비해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이 낮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4개 과목 평균이 86점 이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요즘 높은 자녀교육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이 좋은 시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2)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에 따라서는 모의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부의 양육태도에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형제수가 1명인 아동에 비해 2명인 아동과 셋 이상인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가 많을수록 부의 양육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을 저하를 우려하는 사회에서 이런 결과가 부부들로 하여금 자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율-통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검증에서 자율-통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와 둘째가 외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느끼고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이 외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성취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동이 셋째 이상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형제 수와 출생순위 및 부 학력과 모 학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은 정서표현 과 정서조절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업성취도는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국어성적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국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형제수에 따라서는 형제수가 1명인 아동이 3명이상인 아동보다 전체 학업성취도 및 사회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동, 첫째, 둘째인 아동이 셋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아동의 학업성취도보다 모두 높았다. 이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은정(2007)의 부와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가정의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보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전체과목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지은(2009)의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정서조절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 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낮았는데 특

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합리-비합리와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었으나 모의 양육태도와 수학, 과학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모의 양육태도보다는 부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의 양육태도와 국어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감정이입과 수학과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다른 과목에 비해 언어 사용 능력과 관련된 국어과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추후 연구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 지역 등이 골고루 표집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만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따로 작성하여 부모와 아동이 서로 지각하고 있는 양육태도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인숙(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1996). 교육학대사전, 서울 : 대한 교육 연합회.
- 구혜영(200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화합도가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아(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일선(199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석(2008). 중학교 남·여학생간의 평가문항 유형별 수학 학업성취도 차이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2004). 고교생의 일반지능,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래(2002). 취업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2002). 유치원·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민혜경(2006).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이 사회성 발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종(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08).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옥(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2009). 대전시 일반계 고등학생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애경(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연구노트.
- 윤용숙(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형제관계와 정서지능의 관계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화(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06).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례(1995).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학(1989).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숙(2002). 부모양육태도, 형제관계 및 정서지능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 이종승·오성심(1982). 유아연구방법, 서울 : 계몽사.
- 이주현(2004). 과외학습과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 학습태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199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꽃눈(2004).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아(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이성진(1992). 학업성취의 요인. 서울:교육출판사.
- 정선희(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2).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서울:교육출판사.
- 정원식·이성진(1989). 현대교육심리학. 서울:교육출판사
- 정필환(2005). 도서지역과 도시지역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와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진미(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연구. 석사학위 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재(2003).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 및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은정(2007). 중학생의 가정환경 변인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아(2005). 수학에 대한 정서, 정서지능, 학업성취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우기(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효능감, 학습동기 및 학업성

- 취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현(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정(2004).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교교육연구소. Gardner, H. (198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psychology monographs.4(1.part2)
- Beck, A. T.(1964). Depression :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enn, M. L., & Hoffenn, L. W.(eds), Review of Child Developmnet,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Bloom, B. S(1971) Affective consequences of school achievement. In J. H. Block(Ed.), Mastery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3-28 page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 Basic Books.
- Freud, S. (1910).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1.
- Gardner, H.(199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 Basic Books.
- Coe. W. C. (1972). Challengers of Personal Adjustment. SanFransisco: Rinhart Press.
- Goldberg, Jane G. (1990). Psychotherapeutic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Piscataway: Transaction Publishers.
- Goleman, Daniel. (1995). Emotional intelligence : why it can matter more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Saloverly. P. & Mayer, J. D. (1990). Emotion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Salovey, P. & Mayer, J. D.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pp. 245-267

Symonds, P. M.(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Appleton Century Crafts.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i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59(2), 226-384

Weinberg, Sharon L. & Goldberg, Kenneth P. (1990).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 Academic Achievements and Parents' Rearing Attitude sensed by Children

Kim Yeo-jin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ang soon

The purposed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wha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s' rearing attitude is, to seek a desirable direction in parents' children rearing and children's learning & life guidance at a home, and to suggest a pos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A 600 students of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at 2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Jeju City were sampled, and then, 522 students were finally selected as an object of study.

The "Perceptual test of rearing attitude of parents" made by Lee Jong-seung and Oh Seong-shim(1982) was used as the measurement tool used for measuring parents' rearing attitude sensed by children after amending and complementing it, and an inspection tool for senior graders of an elementary school developed by Moon Yong-lin(1996) based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model of Salovey & Mayer(1990) for an emotional intelligence test.

Cronbach's α coefficient and an average & standard deviations were found by using a SPSS 12.0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data processing.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appeared to feel like parents' rearing attitude is affectionate, autonomous, achieving and reasonable and they sensed mother's rearing attitude more positively rather than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affection-hostility to mother's rearing attitude appeared the highest, so this shows that they have a high inclination that senses mother's rearing attitude affectionately. On the other hand, father's rearing attitude appeared lowly in achievement - non-achievement, compared to other rearing attitud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was a level that they can recognize, express and control emotion of oneself and other people, and can do empathy to other people well. As a subordinate factor, emotional recognition was the highest, and next, it was in the order of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ontrol, and empathy was the lowest. Especially, an average of emotional recognition wa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factor. The learning achievements of children highly appeared over 86 marks in an average of all subject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parents' rearing attitude by background variable of children in accordance with gender,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and birth order. In an aspect of gender, it appeared that girls student feel mother's rearing attitude affectionately and reasonably, compared to boy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ther'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and it appeared that children with 2 or more than 3 brothers and sisters feel that father's rearing attitude is more affectionate, achieving and reasonable, compared to children with one brother or sister. In an aspect of birth order, the eldest child and the second eldest child feel that father's rearing attitude is more affectionate and reasonable, compared to one child, and it appeared that the eldest, second eldest and third eldest children feel that father's rearing attitude is more achieving, compared to one child. And it appeared that one child in a family feels mother's rearing attitude more autonomously than a child elder than the third eldest child.

The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only gender, and thus it appeared that girls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in emotional expression and control than boy students. The learning achievement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children had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birth order and academic background of parents.

In an aspect of gender, girls students had higher learning achievements in a Korean subject, compare to boy students. In an aspect of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one child in a family had higher total learning achievements and society subject's learning achievements than children with more than 3 brothers and sisters. In an aspect of birth order, one child in a family, the eldest child and the second eldest child had higher learning achievements than the third eldest child or children younger than the third eldest child. In an aspect of parents' academic background, the learning achievements of all children, who have parents with academic background of more than college graduation, had higher learning achievements than children who have a father with academic background of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Thir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each other.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has a higher correlation with emotional control ability compared to other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o it can be known that parents' positive rearing attitude can enhance emotion control ability that control emotion. And the empathy ability among subordinate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as a low correlation with parents' rearing attitude compared to other factors, and especially, it has a low correlation with rationality-irrationality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learning achievements was low, but i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except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athematics & science. It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father's rearing attitude rather tha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Korean language appeared the highest.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hildren's learning achievements was low, but i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except the relations between empathy and mathematics. On the other hand, Korean language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compared to other subjects.



부 부

질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평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와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이 아니며,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므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2.

제주대학교 가정교육과 아동학전공 김여진

※ 다음의 문항을 읽고 ()안에 √표나 ○표를 해주세요.

1. 성별은? ① 남자 () ② 여자 ()
2. 학년은? ① 4학년 () ② 5학년 () ③ 6학년 ()
3. 번호는? ()번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할아버지 () ② 할머니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⑤ 형제, 자매 () ⑦ 기타 ()
5. 나를 포함하여 형제 자매수가 몇 명입니까? 여자 형제()명, 남자 형제()명
6. 여러분은 형제, 자매중 출생순위가 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① 외동 () ② 첫째 () ③ 둘째 () ④ 셋째 ()
 ⑤ 넷째 () ⑥ 기타 ()
7. 아버지의 나이는?
 ① 35세 미만 () ② 35~40세 () ③ 41~45세 () ④ 46세 이상 ()
8. 어머니의 나이는?
 ① 35세 미만 () ② 35~40세 () ③ 41~45세 () ④ 46세 이상 ()
9.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0.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1. 부모님의 직업유형을 아래의 번호에서 찾아 √표나 ○표를 하세요.

직업	아버지	어머니
①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약사, 과학자, 검사, 등)		
② 사무직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		
③ 판매직 (미용사, 상업, 판매원, 요식업, 숙박관리업 등)		
④ 생산직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운수업, 기능공, 노동 등)		
⑤ 주부, 무직		
⑥ 기타(직업을 써 주세요)		

1. 부모양육태도 설문지(아버지)

★ 질문의 내용을 읽고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 √ 표나 ○ 표를 하세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와 자주 다정하게 이야기 하신다					
2. 아버지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주신다					
3. 아버지는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싫어하시는 편이다.					
4. 아버지는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아버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6.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신다.					
7. 아버지는 형제들을 야단할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8. 아버지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칭찬해주시는 편이다.					
9.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10. 아버지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11.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면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실 때가 많다.					
12.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신다.					
13. 아버지는 어려운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신다.					
14. 아버지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기를 좋아하신다.					
15. 아버지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16. 아버지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17. 아버지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8. 아버지는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19.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에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다를 때가 많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아버지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21. 아버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22. 아버지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23.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해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곤 하신다.					
24. 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25.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26. 아버지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것을 한다고 나무라실 때가 많다.					
27. 아버지는 내게 벌을 줄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28.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29. 아버지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을 위험하다고 못 하게 하신다.					
30. 아버지는 비록 어린 내가 하는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면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					
31.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32.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대부분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33.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34. 아버지는 잘못된 원인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하실 때가 많다.					
35.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36. 아버지는 가족이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나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신다.					
37. 아버지는 내가 하기에 좀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권하시는 경우가 많다.					
38. 아버지는 가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신다.					

2. 부모양육태도 설문지(어머니)

★ 질문의 내용을 읽고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 √ 표나 ○ 표를 하세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는 나와 자주 다정하게 이야기 하신다					
2. 어머니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주신다					
3. 어머니는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싫어하시는 편이다.					
4. 어머니는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어머니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6.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신다.					
7. 어머니는 형제들을 야단할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8. 어머니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칭찬해주는 편이다.					
9.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10. 어머니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11. 어머니는 기분이 나쁘면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실 때가 많다.					
12.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신다.					
13. 어머니는 어려운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신다.					
14. 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기를 좋아하신다.					
15. 어머니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16. 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17. 어머니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8. 어머니는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19.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에 나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다를 때가 많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21. 어머니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22. 어머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23. 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해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곤 하신다.					
24. 내가 질문을 하면 어머니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25.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26. 어머니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것을 한다고 나무라실 때가 많다.					
27. 어머니는 내게 벌을 줄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28.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29. 어머니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을 위험하다고 못 하게 하신다.					
30. 어머니는 비록 어린 내가 하는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면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					
31.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32.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대부분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33. 어머니는 여러 가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34. 어머니는 잘못된 원인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하실 때가 많다.					
35. 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36. 어머니는 가족이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나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신다.					
37. 어머니는 내가 하기에 좀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권하시는 경우가 많다.					
38. 어머니는 가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신다.					

3. 정서상태 검사지

★ 질문의 내용을 읽고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나 ○표를 하세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3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4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6	나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7	나는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8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9	나는 동생이나 동네 꼬마가 귀여워도,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10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2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는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3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4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5	길에서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는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6	나는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17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19	엄마나 친구의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20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은 것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21	울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22	나는 거지나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23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24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25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26	나는 괴로울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28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29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30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한다.					
31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는 못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32	짜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3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34	부모님께서 화가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35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도록 나는 양전하고 똑똑하게 행동한다.					
36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그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37	동생(친구)이 울 때, 나는 동생(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한다.					